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평창

2017년 9월 21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 20.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9. 20.(수)	담당부서	무역진흥과
담당과장	박덕열 과장(044-203-4030)	담 당 자	김도헌 서기관(044-203-4846) 김진수 서기관(044-203-5711)

'포스트차이나' 인도 시장개척으로 수출다변화 추진

- **산업부 9.20(수)~22(금) 3일간 「2017뉴델리 한국우수상품전」 개최**
- **소비재부터 산업재까지 전분야 망라한 전시회로 우수중소기업의 진출 지원**
- **영화 '세얼간이' 배경 IIT총장면담 통해 다양한 기술교류를 위한 발판 마련**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백운규)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 주관으로, 인도에서 「2017 뉴델리 한국우수상품전」을 개최했다.

○ 한국우수상품전은 소비재부터 산업재까지 한국 산업의 전분야를 망라한 기업간 전자상거래(B2B) 전문 수출 전시상담회로 우수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열렸으며, 정부대표로는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참석했다.

< 2017 인도 뉴델리 한국우수상품전 개요 >

○ **일시/장소 :** '17. 9. 20.(수) ~ 22(금) / 인도 뉴델리 프라가티 마이단 전시장
○ **주최/주관 :** 산업통상자원부 / KOTRA
○ **참여규모** : 인도 및 인근지 해외 바이어 530여개사, 국내기업 100여개사
○ **주요내용** : ① 1:1수출상담회 ② 한-인도 경제협력포럼 ③ 전시부스 운영 ④ 한국홍보관(평창올림픽 홍보 등) ⑤ 아트콜라보관 ⑤ 부산시홍보관
※ 개막식 : '17. 9. 20(목) 14:00~15:30(한국시간), 프라가티 마이단 7번 전시장 로비

□ 인도는 구매력이 높은 두터운 중산층 인구*를 가진 세계 3위의 거대 시장**으로 앞으로도 높은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***되어 산업부는 주요 경제협력 상대방으로 인도를 주목하고 있다.

* 인도 중산층(연소득 $4,400-$22,000) 6천만명, '25년 10배 증가 예상
** 구매력 기준 GDP 9.5조 달러 세계3위, 명목기준 GDP 2.5조 달러 세계6위
*** ('15) 7.9% ('16) 6.8% ('17e) 7.2% ('18e) 7.7% ('19e) 7.8% (출처: IMF / 실질 기준)

○ 이에 작년 12월 인도 경제 중심지인 뭄바이에 이어 수도 뉴델리에서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, '포스트차이나' 전략시장인 인도 전역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.

□ 이번 행사는 대-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한 대규모 수출상담회로서,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 및 중동 등 총 8개국에서 모집된 530여개의 대규모 바이어가 참여한다.

○ 중소기업관에는 전기전자, 산업재 등 대인도 주력 수출품목을 비롯해, 생활용품, 화장품 등 유망 소비재 관련 93개사가 참가한다. 1990년대 중반 진출 이래 인도 시장에서 수위를 다투고 있는 삼성전자, 엘지(LG)전자, 현대자동차, 효성 등 4개의 대기업관도 설치돼 한국 제품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각인시킴과 동시에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의 장도 마련됐다.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□ 또한 △한국홍보관 △예술과 제품을 결합한 아트콜라보관 등을 마련해 인도인에게 한국과 한국문화를 소개, 기업의 인도진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.

○ 한국 홍보관에는 양국의 교류역사, 한국의 산업현황, 케이-케릭터(K-Character: 애니메이션), 케이-게임(K-Game: 게임), 케이-웨이브(K-Wave: 드라마) 소개부스를 설치하고, 한복체험 및 케이팝(K-POP) 공연을 통해 일반 관람객도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. 아울러 전시장 한켠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영상을 상영해, 아직은 동계스포츠가 생소한 인도의 이목을 사로잡을 예정이다.

□ 한국상품전과 연계한 행사로 한-인도 경제협력포럼이 개최되었다.

○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포럼 축사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 추진 방향으로 △조속한 한-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CEPA)

개선협상 타결 등 양국 경제협력 기반 강화, △양국간 제조업 및 인프라 개발협력 강화, △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파트너십 구축 등 협력 분야 다각화를 강조했다.

□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인도공과대학 총장(람고팔라오)과 면담을 통해 양국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협력 방안을 모색했다.

○ 우리에게 영화 '세얼간이(3 Idiots)'의 배경으로 친숙한 인도공과대학은 유니콘 기업* 창업자를 세계 대학 중 4번째로 많이 배출한 곳으로 인도가 가진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잘 보여주는 곳이다. 산업부는 금번 방문을 통해 양국간 산업기술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.

* 유니콘 기업: 기업가치가 10억달러(약 1조 1천억원)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

【붙 임】 「2017 뉴델리 한국우수상품전」 행사 개요

※ 사진은 9.20일(수) 21:00경(한국시간 기준) 별도 배포 예정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김도현 서기관(☎ 044-203-484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2017 뉴델리 한국우수상품전 개요

□ 사업 개요

○ 기간 및 장소 : '17.9.20(수)~9.22(금), 뉴델리 프라가티 마이단 7번 전시장
* 개막식: 9.20(수) 14:00~15:30 (한국시간),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참석

○ 주관/주최 : 산업부 / KOTRA, 인도상의(FICCI)

○ 규모 : 7,067㎡, 국내기업 97개사*, 바이어 530개사(인도 400, 인근지 130)
* 중소기업 93개사, 대기업 4개사(대중소 상생협력)

○ 연계행사 : 한-인도 경제협력 포럼, 한-인도 경제인 네트워크 만찬

□ 전시장 구성

구 분		구성
기업관	국내기업 (97개사)	- 소비재(28개), 산업재(27개), 전기전자(15개), 뷰티(14개), 건강·의료(9), 대기업(4개사; 삼성전자, LG전자, 현대자동차, 효성)
홍보관	한국홍보관	- 한국홍보관(문화, 뷰티, 식품 등) 운영 - 아트콜라보 (10개사)
	부산시 홍보관	- 부산시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, 6개 기업부스 참가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<전시장 배치도>

